

【해외출장 복명서】

러시아·중국·일본 초광역경제권 형성 및 협력방안 모색

2009. 4.

- 출 장 국: 러시아, 중국, 일본
- 출장일시: 2009년 4월13일~4월22일
- 출 장 자: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용(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차 례

1. 해외출장 개요	1
2. 방문기관별 협의 내용	4
1)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태평양지리연구소	4
2) 러시아 연해주정부 대외경제협력국	5
3)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토개발 및 지구개발연구소	8
4)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10
5) 일본 후쿠오카 시청, 큐슈경제조사협회	12
6) 일본 기타큐슈 시청,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19
7) 일본 니가타 환일본해경제연구소	24
3. 정책적 시사점	27
◆부록 1. 방문기관 사전 질의요지(송부용)	38
◆부록 2. 수집자료 목록	45
◆부록 3. 큐슈와 한국 남부 초광역경제 제후모델 수립 일한조사(요약)<별첨>	
◆부록 4. 환동해지역에서 도시간 연휴	<별첨>
◆부록 5. 방문인사 명함	<별첨>

1. 해외출장 개요

□ 원내 출장자 및 출장기간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 4. 13.~4. 16.(3박 4일)

이춘용(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9. 4. 13.~4. 22(9박 10일)

□ 관련기관 출장자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박선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과장	지종철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박기영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강성태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 이유리
국토해양부	해안권기획과	사무관 윤상훈
노무라종합연구소	컨설턴트	최자령 홍정한 성연주 김경환

□ 출장목적

- 우리 원에서 수행 중인 동·서·남해안 초광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국제 컨퍼런스,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관련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최근 연구동향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
- 한국과 초광역개발 협력 실태, 실천 방향 등에 대한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타진

□ 주요 방문기관 및 답사 지역

○ 연구기관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지리연구소(블라디보스토크)
- 중국
 - 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地區)개발 연구소(베이징)
 - 칭다오시 사회과학원(칭다오)
- 일본
 - 재단법인 큐슈경제조사협회(KERC, 후쿠오카)
 - 재단법인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ICSEAD, 기타큐슈)
 - 재단법인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니이가타)

○ 행정기관

- 러시아 연해주정부(Primorsky Territory Government) 대외협력국
- 중국 칭다오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 일본 후쿠오카(福岡)시 경제진흥국·총무기획국, 기타큐슈(北九州)시 기획문화국
- 대한민국 영사관 : 블라디보스토크, 칭다오, 후쿠오카, 니가타(新潟)

□ 방문기관별 사전질의 요지*

- 러시아 :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토대로 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 중국 : 환황해경제권 구축과 양국의 초국경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일본 : 환동해, 환남해경제권 강화를 위한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전략

* 질의 내용은 부록 1. 참조. 각 방문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함.

□ 출장 세부일정

날짜	교통편	시간	일정
4월13일 (월)	항공	10:00 14:20	인천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철도역 답사)
4월14일 (화)	현지교통	10:00	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태평양 지리 연구소 방문(오전)
		11:50	② 러시아 연해주정부 대외협력국 방문(오후)
4월15일 (수)	항공	08:25 09:00 12:00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북경 도착 ③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토개발 및 지구(地區)개발 연구소 방문
	항공	22:00 23:15	북경 출발 청도 도착
4월16일 (목)	항공	10:00	④ 청도시 외사 관공실, 무역부, 사회과학원
		14:50	청도 출발
		19:50	후쿠오카 도착
4월17일 (금)	현지교통	10:00 14:00	⑤ 후쿠오카 시청, 규슈경제조사협회 후쿠오카 시내, 하카다(博多)항 견학
4월18일 (토) ~19(일)	현지교통		지역 현지산업(구마모토현 특화 농산물-와인), 아소 팜랜드-지역산업 홍보 및 자연휴양단지, 아소 화산-자연자원의 관광기반, 일반국도 212호선 道の駅(미치노에키)에서 지역홍보 실태 등
4월20일 (월)	항공	10:00	⑥ 기타규슈 시청, 국제동아시아 연구센터
		16:00 17:35	후쿠오카 출발 니가타 도착
4월21일 (화)	현지교통	10:00 14:00	⑦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방문 니가타 항만, 시내 현지조사
4월22일 (수)	항공	9:25 11:55	니가타 출발 인천 도착

2. 방문기관별 협의 내용

1)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태평양지리연구소

☞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14일 10:00~11:20
 - 면담장소: 태평양지리연구소 2층 회의실
 - 면담자: Anatoly N. Kachur(부소장) 외 4명
-

○ 러시아 정부 국가중장기 발전계획(2008~2025)의 연해주 발전계획 개요

- 계획 대상구역 : 러시아 바이칼호에서 연해주까지를 계획 구역으로 설정
- 계획기간 :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2008~2013, 2014~2020, 2021~2025)
- 연해주 인문사회 환경
 - 계획기간 중 인구는 증가가 없는 현상 유지를 전제하고 있음(1991년 이후 인구는 정체 현상을 나타냄)
 - 농업 부문의 우위를 나타내고, 에너지 자원은 석탄(생산량)이 67%이며 이 가운데 연해주에서 45%를 생산
 - 연해주의 국내총생산액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 ※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유인물로 제공하지 않아 구술에 의한 기록임
- 계획의 목표
 - 우크라이나, 바이칼호 주변의 지하자원 등 에너지 개발에 중점
 - 자원 활용의 극대화/에너지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 / 자연환경의 보전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
 - 기반시설 확충 : 연해주의 SOC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역내 교통의 강화
 - 급속히 감소하는 인력 확충 방안 : 인구감소(1991년 이후 2백만 명이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백만 명은 자연유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중국 24천 명, 동남아시아 120천 명) 등을 통하여 인력자원(human resources)을 충당

- 주요 개발사업 : 에너지 공급시설의 확충
 - 사할린 지역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및 장기적으로 하산과 북한까지 연결을 구상
 - 이 사업의 효과는 7개 국의 GRDP를 19.4% 향상시키며 파이프라인 건설과 전기 공급 등 총 17.5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고, 이 사업에는 중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 기존 정유화학 공장의 생산량을 6~9배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
- 산업발전계획
 - 기술인력에 대한 확충이 우선적이며, 인프라 개발과 병행한 산업입지를 계획(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에서 하바로브스크)하여 낙후지역의 산업이전효과를 도모
 - 단기적으로 연해주 국경지역의 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32% 증대시키고, 아무르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산업입지를 제공
 - 사할린 주와 캄차카 반도까지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를 집적화할 계획
- 주요 토의 내용
 - 천연가스/파이프라인 등을 한국과 직접 교역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연해주 등의 발전 속도가 높아 국가 간 동반 성장이 필요
 - 자연보전 전략에 대한 국가 간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높음

2) 러시아 연해주정부 대외경제협력국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14일 11:50~12:50
- 면담장소: 연해주정부청사 8층 회의실
- 면담자: Dmitry A. Sotnik(부국장)

○ 연해주정부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

-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 GDP 성장률은 최근 2년간 6%씩 증가

- 대외무역 현황

· 2008년 말 현재 85개 국가와 교역하고 있고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70억 달러

·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9억 달러이고, 주로 수산물, 고철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 상품 수입(5억 달러) 품목은 (중고) 자동차, 건설장비, 식료품, 석유화학 제품 수입

· 연해주에 외국자본 투자규모는 2.8억 달러(전년대비 26% 증가)로 한국은 2억 달러를 투자

- 주정부의 주요 개발사업

· 2012년 APEC 정상회담 준비,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 간의 수송 루트 개설, 원유 공장 등을 건설 중

· 도로, 교량 공사를 비롯한 나훗가 항만시설 확충 사업은 원유부두 확장(연간 처리물동량 천만 톤), 액화가스 터미널 건설(연간 265억 m³), 석탄부두 재개발(수호도만, 연간 1.5억 톤 처리)

· 주요 개발계획은 원유 정제 공장 건설, 100만 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터미널 및 물류단지, 우스크 섬 연결 교량 건설 등이고 APEC 행사장은 향후 대학시설로 활용 예정

· 연해주 주요 개발사업에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로는 인프라 건설, 상수도 공급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교통개선 사업 등이고 주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법안 확정 후 본격 개발을 추진할 예정

○ 주요 토의 내용

- 러시아 경제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의 적기 추진이 가장 시급

- 원유 선적이 가능한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파이프라인, 유조차, 탱크선 등을 수용하는 복합기능을 수용
- 카스프롬 공사는 연해주까지 연결되는 가스관 부설 공사, 터미널(석유, 액화가스) 시설 사업을 시행
- 주 정부는 하수처리와 같은 기반시설에 국한하고 있고, 호텔 등의 편익 시설을 민간부문에서 담당
- 비즈니스 센터 등은 시 정부가 주관하고, 현대호텔과 같은 경우 시소유 부지를 민간에게 제공하여 민간의 경영권과 부지 이용권을 보장
- 한국과의 국제 협력 교류가 활발하고 '국제협력센터' 건설을 희망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도지사 간 협의체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은 강원도가 참여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 등은 없음

※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 간담회(4월 14일 13:00~14:10)

- 김무영 총영사, 유명수·양병진 영사
-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하는 대신 연해주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에너지 관련 영사업무에 대하여 한국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
- 연해주는 인구 과소지역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지만 폐쇄적인 아닌 공동 이용/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최근 남북 경색 분위기 등에서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위한 제2, 3의 창구로 활용
- 한국(북한 포함) 중국 러시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장으로 활용
- 북한 난민 등을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추구
- 도지사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가능한 것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력 사업에서 역할 분담을 모색

3)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개발연구소

☞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15일(수) 12:00~14:30
- 면담장소: 국토개발 및 지구개발 연구소 12층 회의실
- 면담자: 肖金成(Jincheng Xiao) 부소장, 王青云(Qingyun Wang) 부소장 외 6인

○ 최근 중국 국토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중국 내륙의 균형발전 정책은 교훈과 대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음
- 1979년부터 동북 특화발전 전략인 개방정책은 심천 등 14개 특별도시에서 시작되어 주장(珠江) → 장강(長江) → 환보하이(環渤海)로 이전하였고, 빈부 차이는 더욱 벌어짐
-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대발전 계획과 2001년 동북대전략, 2005년 중부지역 발전 목표를 설정함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특히 20대 초반의 취업 목적)이 매우 심각하고,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탈도시,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중국 내수 확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현재 미지수임

○ 중국 제11차 5개년(2006~2010) 발전계획의 특징

- 발전계획의 방침
 - 연해지역의 성장과 함께 내륙발전의 연계 도모
 - 국유산업의 조정 및 지역산업의 진흥
 - 징진지(京津冀) 등 대도시 개발의 가속화 및 주위 개별 도시의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은 잠재력을 위주로 한 개발과 생태환경의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

○ 국가 간 협력의 틀과 단계별 추진전략

- 합작(合作)은 필요한 것으로 중국 계획수립 전문가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 협력 주체는 국가 외의 주체 간 협력이 우선 추진 가능함
- 관광, 한국 간 합작 - 개별 항만들이 중심기능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므로-에서는 상호 이익 분배, 공동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당해 지역의 여론 등 저변 확대가 필요함

○ 한중일 공동체 형성 관련

- 교통부문, 정보산업, 문화교류에서는 우선 추진 필요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추진이 전제되어야 함
- 기업 등과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교통 및 운수에서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산둥성 컨테이너 선적량에 대한 수송시간의 단축 방안은 가장 시급한 점임
- 수송시간 단축을 위한 원산지 표시와 위치 정보 제공(RFID), 열차 페리를 통한 대련~연태 지역의 연결, 무비자 시행 등은 우선 추진이 필요함

○ 국가 간 산업적 분업체계의 구축이 필요

- 풍부한 노동력, 첨단기술 인력 등을 상호 활용하는 공동체 시장의 산업협력체계가 필요함
- 노동시장의 개방을 통한 상호 인력의 교류는 필수적이며, 한중일 간의 가교 역할은 중일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할 것임
- 국유기업/대기업, 기술인력 공급, 동북 3성의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사업, 금융 대출지원 등은 조속 추진해야 할 과제에 해당함
- 두만강 유역 개발, 메콩강 개발사업 등은 공동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ASEAN+3에서 정책 의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은 아직 취약한 단계이고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제약이 있으므로, 한중 연구기관 간 협력연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4)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대외경제협력국, 사회과학원

☞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16일(목) 10:00~12:00
- 면담장소: 칭다오시 사회과학원 2층 회의실
- 면담자: 徐万珉(Wan Min Xu) 사회과학원 원장, 鄧力(Li Deng) 칭다오시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부국장 외 10인

○ 칭다오시 외자 유치 규모 개관

- 2008년 말 총 5228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한국은 141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은 GS Caltex, LG전자 등으로 식품, 전자, 석유화학임
- 한국에서 4.5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무역 총액은 8.8억 달러
- 한국으로 운항 항공편수는 주당 70편

○ 한중일 간 협력 강화 필요성

- 한중일 협력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공동 극복이 필요하고, 주장, 장강, 징진지 등 중국 4대 경제권과 대응할 동아시아 산둥성의 4대 도시(칭다오, 다이렌, 옌타이, 위해), 한국(인천 부산 울산), 일본(후쿠오카,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간의 공동 협력을 활성화하여 북경을 초월하는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둥성 8개 도시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 서해안의 평택 안산 용인 군산 등과 협력체계를 제휴하고 있음
- 조선, 자동차, IT, 농업 부문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하여 과도한 경쟁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와 한중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중 간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1992년) 50억 달러에서 2008년 1559억 달러로 증가, 수출입 순위에서도 한국이 수위를 차지하여 이와 입술과의 관계임

○ 최근 중국 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처방안

- 최근의 경제여건의 변화는

- 인력의 이탈과 동남아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세금 우대조치의 해제 - 외국기업 15%, 국내기업 33% - 등)이 줄고 세제 개혁 등으로 개방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고
- 위안화의 상승으로 가공무역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중국 경제정책에서 대처가 필요한 부문은

-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의 우대기간을 연장
- IT/에너지 자원, 환경보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
- 금융/물류/제조업 육성 및 금융 관련 세제의 개선
- 중국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필요하고 달러 위기에 대응한 통화제도의 도입이 필요
- 특히 국가와 성 외에 시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환황해권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 관계 지속이 필요

5) 일본 후쿠오카 시청, 큐슈경제조사협회

☞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17일(금) 10:00~12:00
- 면담장소: 큐슈경제조사협회 6층 회의실
- 면담자: 큐슈경제조사협회 森本廣 이사장, 高木直人 상무이사, 渡辺正光 후쿠오카시 경제진흥국장 외 7인

※ 방문 전 질의 요지(부록 1)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및 토의가 있었으며, 후쿠오카시와 큐슈경제조사협회 관계자, 후쿠오카 총영사관, 부산광역시(과천) 등의 협조에 감사를 표함

○ 한일 간 초국경협력을 위한 제언 - 지역발전위원회와 후쿠오카시, 큐슈경제조사협회 의견교환회(高木直人 상무이사 발표)

- 자동차산업

<현상>

- 큐슈는 일본 자동차 150만대를 생산하고 있고
- 자동차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연구 개발 및 인재육성의 거점(큐슈대학교 Automotive Science, 아소우 공과자동차대학교)

<제언>

- 한일 간 제휴를 위한 제안: 대학교로 일체가 된 차세대 자동차 - 환경 대응 차세대 자동차, 수소계열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 의 개발
-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자의 획득과 소프트웨어의 도입
- 큐슈대학교 Automotive Science에 부산에서 입학 범위를 설정
- 일본에서 한국으로 품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 물류업

<현상>

- 부산은 과거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였고, 하카타(博多)항의 17배에 이르는 컨테이너 화물량을 처리
- 부산항·부산신항을 허브로 한 네 가지 수송 모델이 형성되어 있는데

<표> 부산항과 하카타항의 컨테이너 화물량 추이

(단위 : 천TEU)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산항	9,453	10,407	11,491	11,843	12,039	13,260	-
하카타항	545	567	611	667	711	750	758

- ① 부산에서 유통가공 및 보관하여 일본 각지로 수송
- ② 일본 각지에서 부산항으로 보관하여 한국 내 공장으로 수송
- ③ 일본 각지에서 부산신항에서 가공하여 러시아로 수출(중고자동차 등)
- ④ 홋카이도에서 부산신항으로 다시 큐슈지역으로 수송

<제언>

- 한중일 간 제휴를 향한 제안으로는 4개 모델 외에
- ⑤ 중국으로의 자동차 부품을 한일 공동 수송시스템을 구축

- IT 산업

<현상>

- 큐슈경제권의 IT 산업은 도쿄 일극 집중을 보이고 있어 후쿠오카시의 집적도는 높지 않으며, 도쿄의 하청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 만성적인 인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인 IT 기술자를 육성하여 활용하는 IT 기업도 생겨남
- 한일 교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제품 수출에 국한하고 있음

※ 정령지정시 가운데 후쿠오카시의 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 사업소수 4위(554개소. 1위 동경도 23구 4,533개소)
· 종업원수 6위(19,318명. 1위 동경도 23구 385,164명)
· 연간 매상액 6위(3,583억 엔. 1위 동경도 23구 10조 9,962억 엔)
· 1사업소당 연간 매상액 11위(647백만 엔. 1위 가와사키川崎市 6,248백만 엔, 2위 동경도 23구 2,426백만 엔)

<제언>

- 후쿠오카와 부산의 인재 교류
- 조직간 교류 활성화에 의한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 디지털 콘텐츠 공동 개발 등

- 관광·컨벤션

<현상>

- 컨벤션은 대규모화하고 있고, 후쿠오카시는 일본 4위의 국제 컨벤션을 개최
- 한국 기업의 일본 호텔 - IP호텔, 사이카이다리 코라손, 세키아히르츠-과 골프장 -아소, 무나카타, 타케오 우레시노- 에 대한 M&A

※ 국제 컨벤션 도시별 개최 건수(2007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위 도쿄(440), 2위 교토(183), 3위 요코하마(157), 4위 후쿠오카(151), 5위 나고야(109), 6위 고베(89) |
|--|

<제언>

- 대규모 컨벤션 공동 개최: 모터 쇼의 격년 개최, 영화제, Asia Month/Asia Week 등
- 부산~후쿠오카 저가 운항(low cost carrier)에 의한 접근성 강화: Busan Air 등. 제주 Air는 인천/제주~기타규슈 취항)
- 해외에서 공동 프로모션 개최(크루즈 선박 유치 등)
- 교통관련 IC 카드, 은행 현금카드 등의 공동 이용 등

○ 큐슈경제의 개관(큐슈경제조사협회 경제연구부 加峯隆義차장)

- 큐슈는 일본 전국의 '10% 경제'

- 인구 14,761명(2003년, 전국 11.6%), 면적 44,446km²(2003년, 전국의 11.8%), GDP 4,400억 달러(2005년, 전국의 9.7%)

- 한국 대비 인구(47,925천명)는 3.25배, 면적(99,538km²) 2.24배, GDP(7,876억 달러)의 1.79배
- Car Island 큐슈
 - 자동차 생산능력 연간 150만대, 자동차 부품 공장 700개소
 - 자동차 생산회사는 도요타, 닛산, 마츠다(호우후), 다이하츠(나카츠) 등
- 실리콘 아일랜드 큐슈
 - 1967년 큐슈 최초 반도체 공장 설립(미츠비시전기 쿠마모토), 1958년 IC 발명으로부터 9년 후
 - 1968년 당시 세계 최대의 공장인 큐슈니혼 九州日本電氣 설립
 - Sony, Thosiba 등 17개 웨이퍼 프로세스 공장 등 65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공장이 입지하여 있고, 반도체 생산은 세계의 10%, 실리콘 웨이퍼는 세계의 15%를 점유하고 있음
- Food Island 큐슈
 - 농업산출액(억 엔, 국내점유율 %. 2004년)으로 1위 쌀(2,042, 10.1%), 2위 소(2,034, 39.6), 3위 돼지(1,707, 31.4%), 4위 브로이라이(밀)(1,045, 42.9), 5위 생우유(727, 10.7), 6위 딸기(578, 34.5), 7위 계란(558, 14.6), 8위 밀감(525, 34.4), 9위 토마토(462, 23.8), 10위 담배잎(426, 43.4)
-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큐슈(관광산업)
 - 2005년 민관 일체의 큐슈관광 활성화를 위한 '큐슈관광추진기구' 발족
- 한국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과 일본 큐슈권의 경제력
 - 한일 전체 GRDP(5조 7231억 달러)의 9.8%인 5,631억 달러이고 큐슈는 4238억 달러로 7.8%
 - 한국과 교통네트워크는 항공편의 경우 1일 후쿠오카~부산 3편, 후쿠오카~서울 5편 등 매주 후쿠오카~제주, 서울~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 2~5편과 하카타~부산 고속페리 및 부산~하카타, 시모노세키 페리가 매일 운항하고 있음

- 인적교류
 - 큐슈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2007년 741천 명으로 일본 전체 입국자 2846천명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무역 현황
 - 기계 기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한국으로) 수출은 일반기계와 전기기계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최근 화학제품과 철강이 증가
 - 수입은 기계기기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부품이며, 최근 액정디바이스와 정밀기계가 급증하고 있음
- 번영을 위한 국경을 초월한 지역 제휴
 -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교류회의(한일 지사 서밋)와 관련 교류사업
 - 자매도시 결연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 한국·큐슈 경제교류 회의
 - 부산-후쿠오카 포럼 등이 개최되고 있음
- 큐슈와 한국 남부(부산 등) 초광역경제 제휴 모델 수립 일한합동 조사 (별첨 부록 3 요약자료 참조)
 - 기업 간의 제휴 가능성이 높은 분야
 - 환경산업, IT 산업, 바이오산업, 기계산업, 부품소재형 산업, 인재분야
 - 일본기업에서 본 한국 비즈니스의 과제
 - 지적 재산권의 보호, 일본에 대한 감정적 문제 해결, 품질관리·기술 레벨의 격차, 정보 부족 등
 - 한국기업에서 본 일본 비즈니스의 과제
 - 큐슈 시장의 규모, 큐슈에는 도쿄 본사 기업의 지점이 많은 것, 신뢰관계 부족, 규제가 많음, 정보 부족 등

※ 큐슈와 한국 남부의 초광역경제 연휴 모델 수립을 위한 제언

- 한국과 일본의 사정을 잘 아는 키맨의 발굴과 경제교류 조직 구성
- 조직화가 되지 않은 업종(기계산업, 부품소재 산업 등)은 행정력을 통하여 조직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교류를 지원
- 양지역 정보를 집약하는 기관의 설립과 인재분야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의 공유
- 중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관설립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설립
- 공동 비즈니스 매칭 센터의 설립과 스터디 그룹/세미나의 정기 개최
-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션단의 상호 파견(예, 금형산업 등) 회수 증대
- 외국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의 교부 등을 검토

○ 후쿠오카시와 부산광역시 간의 경제협력·교류(후쿠오카시, 부산광역시)

- 교류의 역사

- 1964년 청년회의소가 자매 제휴, 1966년 관광협회가 자매협회 체결
- 1989년 ‘행정교류도시’ 체결, 1999년 ‘후쿠오카·부산광역시 간 경제교류 촉진에 관한 기본합의서’ 조인
- 2007년 자매도시 체결 조인, 2009년 후쿠오카·부산 우정의 해(행정교류 도시 체결 20주년)

- 주요 민간교류

- 문화, 스포츠, 학교, 자매 제휴
- 후쿠오카-부산 포럼: 산업계와 학계 리더 22명, 2006년부터 매년 개최. 우정의 해 설정, 영화제와 미술관 교류, 행정·기업·교육기관·의료 등의 정보제공 거점 설립, 초광역경제권 추진 및 수뇌회담 개최, 대학간의 컨소시엄 의료관계자 정보 교환, 인턴십 협의회와 투자지원 조직 설치 등
- 후쿠오카와 부산대학교 간의 컨소시엄: 학술교류, 학생교류, 직원교류, 제도적 교류 등
- 상공회의소 간의 자매 제휴: 무역·투자·기타 경제협력 강화, 간담회 및

산업시찰, 산업경제·도시개발 등 정보 교환, 사이버 무역 상담회 및 관광 캠페인 등

- 초광역경제권의 단계적 형성

- 한중일 정상회담(2008. 12. 후쿠오카)에서 먼저 리더들의 교류 → 경제 각 분야에서의 교류 → 두 도시가 하나의 교류권이 되어 생활 레벨에서 동일 경제권으로
- 초광역경제권의 지향은 국경, 제도, 관습,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 하나의 경제권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 국경을 초월한 도시연계의 모델을 구축, 장래 EU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선도적 예가 됨
- 초광역경제권 관련 동향은 2008. 3.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안
- 2008. 10. 20. 부산·후쿠오카경제협력협의회 및 부산·후쿠오카 아시아 게이트웨이 2011 실행위원회 설립
- 2009. 8. 협력·공동사업 결정 예정

※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 간담회(4월 17일 12:00~13:40)

- 김현명 총영사, 남궁환 영사
- 부산과 후쿠오카는 단일 도시와 같은 강력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공동 관광 PR, 테마 발굴 등 윈윈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2011 Asian Gateway 행사를 준비
- 신간선과 KTX를 연계한 한일 간 공동열차 운행 등 통일된 로고와 공통 마케팅으로 관광 외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음
- 한일 정부의 정치적 연계에서 과거와 비교되는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의 지속적 관리와 관심도 필요
-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주로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재정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일본 기타규슈 시청, 국제동아시아 연구센터

☞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20일(월) 10:00~12:00
- 면담장소: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8층 회의실
- 면담자: 谷村秀彦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岩田和晶 기타규슈시 기획문화국 국제부 아시아 교류과장 외 8인

※ 방문 전 질의 요지(부록 1)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및 토의가 있었으며, 기타규슈시와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관계자, 후쿠오카 총영사관, 인천광역시(파견) 등의 협조에 감사를 표함

○ 일본 무역과 직접투자의 동향(瀧井貞行 주임연구원)

- 동아시아 무역(삼각무역+중간재의 취급이 증가)은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경제통합의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따라서 동아시아 제품을 만든다는 인식이 필요함
- '판매기능의 확충'으로 중국, 인도, 태국, 한국 등이 협력 대상국가가 되어 있으며 한국시장의 성숙 → 제품의 다양화 → 수평무역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시장의 확대는 과거 공장에서 지금은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China+1,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합병하여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으로의 FDI가 증가하고 있어 약한 유럽시장에 진출이 필요함

○ 일본, 북부규슈의 항만 현황(瀧井貞行 주임연구원)

- 인접국가와 비교할 경우 효율성의 문제
 - 일본 항만은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지 않아 국내 수송비가 높은 문제가 발생
 - 중소규모의 항만운송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는 효율성의 문제로 나타나며, 코스트는 부산과 카오슝(高雄)의 1.5배에 이름

<표> 항만 요금의 국제비교(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제반요금. US\$)

고베	홍콩	LA	로테르담	싱가포르	부산	카오슝
356	355	320	316	187	169	165

<표> 컨테이너 취급 총요금 비교(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도쿄 100)

구 분	계	선박관련 비용	하역료	터미널 비용
동경항	100	37	45	17
카오슁항	65	34	21	34
부산항	64	23	34	6

- 일본의 국제경쟁력 문제는 동아시아의 문제
 - 피더 포트(feeder port)화의 문제는 수입가격의 상승, 수출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킴(생산 네트워크의 취약)
 - 항만에는 공공성, 지역전체에서 볼 때 집중·독점의 문제가 발생
-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 각종 대책이 장기적으로 격차 해소가 가능해야 함
 - '안정된 항만 서비스의 수요'는 집하, 신규 하물을 창출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이용'은 얼라이언스alliance(항만공사 간)와 협동 조합(업자 간), 24시간 오픈화 등이 필수적임
 - '수속절차의 간소화·신속화'가 이루어져야 함
- 북부규슈의 대한민국 무역의 특징(瀧井貞行 주임연구원)
 - 북부규슈의 대한민국 무역의 개관(2007년)
 - 항만도시의 GDP 비교 : 부산 5.0, 후쿠오카 7.2, 기타규슈 3.5, 시모노세키 0.9
 - 수출 비중(후쿠오카+기타규슈+시모노세키) : 대세계 5%, 대한민국 15%를 점유하고 있고, 수출품목은 대부분 중간재이고 자본재로 구성됨
 - 수입 비중은 대세계 4%, 대한민국 15%를 담당하고 있고, 후쿠오카는 중간재와 자본재가 소비재보다 높고, 기타규슈와 시모노세키는 소비재 점유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음
 - 도시별 주요 수출품목
 - 후쿠오카의 중간재는 집적회로(60%), 관광재료제 시트 및 판(10%), 자본

재의 경우 반도체 관련 제조용기기(67%), 기계류(기타)(10%)이고 중간재 수입은 집적회로(80%)

- 시모노세키는 중간재 품목이 편광재료제의 시트 및 판, 셀룰로이즈제 프라스틱 시트 및 판, 반도체 관련 제조용기 기기부품(계 36%)이고, 자본재는 반도체 관련 제조용기기(77%), 기계류(기타)(5%)이며 소비재는 없음
- 기타규슈는 철강 관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반도체 불·웨이버의 제조장치는 한국이 수입의 약 70%를 일본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약 60%를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한국으로 국제 컨테이너 항로편수(편/주)와 스피드가 중요한 무역
 - 시모노세키 21, 후쿠오카 20편으로 중국 4, 15보다 많음
 - 스피드가 중요한 제품은 빈도가 높은 항만을 이용하고 있고, 북부규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스피드=빈도의 우위성을 활용할 중요한 파트너임
- 가설과 시사점(implication)
 - 가설 : '스피드가 중요한 비즈니스, 제품의 무역은 기항빈도가 높은 항만을 이용한다.'
 - 일본과 한국은 세계와 동아시아 가운데에서 지식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우위성 → 첨단산업 → 스피드 중요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혹은 농수산물)
 - 지리적으로 가까운 항만이라면 효율적으로 기항빈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함
 - 기항빈도가 증가하여 국내 수송비를 낮추고 북부규슈 항만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스피드 대 수송비 → 스피드를 중시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될 것임

○ 동아시아 역내시장 개척의 본격화(2007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 EPA/FTA에 의한 동아시아 역내 경제시스템화와 일체화의 진전으로 일본기업의 판매 활동전략의 변화를 모색

· 동아시아 고도성장을 가져오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일본기업의 동아시아에서 판매 측면의 사업 활동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과거 저코스트 생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판로 확대로 목적이 바뀌어가고 있음

· 일본기업은 동아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볼 때 시장의 기능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시장에서 시장 시스템화를 정비하고, 판매 총괄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 동아시아 시장으로써 판매를 향한 체제를 강화하는 일본 기업

· 동아시아에 이미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진출한 동기는 '진출한 현지에서 판매 유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지역 내 제3국으로 판매유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라고 답하는 기업이 많음

※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진출 동기(경제산업성 2004년도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

- 진출한 현지에서 판매유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26%)
- 해외생산 방식이 코스트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진출(16%)
- 해외 진출한 국내 납품업체(조립 메이커 등)에 인수할 부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13%)
- 일본에서 생산하면 가격경쟁력 유지가 곤란하고, 해외생산으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11%)
- 동일지역 내 제3국으로 판매유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10%)
- 일본으로 역수입(6%), 역외 제3국으로 판매유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5%), 배당 등 수익을 얻기 위해(5%)
- 기타 : 원재료와 자원 확보, 환율 리스크 회피, 현지에서 연구개발, 무역 마찰 회피 등

- 특히, '진출한 현지에서 판매유지 확대' 라는 점은 일본기업이 동아시아를 생산거점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써 진출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기업은 생산기능보다 판매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음(JETRO 2006년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앙케트 조사)
 - 중국의 경우 인구성장과 높은 경제성장률은 시장으로써 매력이 높음
 - 인도는 산업집적이 진행 중이며 중국처럼 인구가 많고 경제성장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생산기능 보다는 판매기능을 우선하고 있음
- 환황해지역에서 도시 간 연휴(龜山嘉大 상급연구원. 별첨 부록 4. 참조)
 - 지식창조 활동의 국제적인 분산화 추이
 - 선진국의 대도시는 지식창조형 생산활동에 특화, 개발도상국 대도시는 지식창조형 생산활동을 시작하고 있음(북경, 싱가포르)
 - 선진국의 지방도시는 지식창조형 생산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나 고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지방도시는 대량생산형 생산활동에 특화됨
 - 일본 지역개발전략의 전면 재검토
 -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 '개성 있는 지방의 경쟁 - 자립된 국가와 지방의 관계 확립 - '(2001. 6. 경제재정자문회의 '환골탈태 방침')
 - 다양한 광역블록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국토형성으로 전환(2008. 7.)
 - 환황해지역 10개 도시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를 결성
 - 제안 사항
 - 동아시아경제교류기구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사업으로서, 동아시아지역(북부규슈를 포함)의 국제물류와 해운산업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작은 것이지만 관광, 로지스틱스는 어떻게든 관련지어 상승효과를 높여야 하고, 10개 도시의 대학·연구기관의 연휴를 추진할 필요

7) 일본 환일본해경제연구소

☞ 면담 일시 및 장소

- 면담일시: 2009년 4월21일(화) 10:00~11:50
- 면담장소: 환일본해경제연구소 12층 회의실
- 면담자: 吉田進 이사장, 佐藤衛 전무이사, 佐藤尙 경제교류부 부장, 中島朋義 연구주임

○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간 협력 증진 방안

- 국가 차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 중
 - 니가타시는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포항시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문화, 행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
 - 한국 동해시와 도토리鳥取현의 페리 운항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고, 보다 진전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인력 구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ASEAN+7 / 극동아시아의 통합과 협력에 대한 관심을 증대해야 하고, 환동해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은 북한의 적정 역할 분담방안임
 - 이 과정에서 몽골과 북한을 동등한 협력자의 관점으로 포용해야 함
- 현재의 정치적 대립(2009. 4. 북한의 동해안 미사일 발사)을 벗어난 북한의 역할 증대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 북한의 경우 환동해권에서 핵심적 역량과 역할 분담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산업부문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고, 손재주를 살린 수작업 부문의 경쟁력 - 휴대전화 모터 제작 등 - 도 있음

○ 환동해권에서 우선적인 협력 분야는 에너지 산업과 관광부문

- 최근 동북아 긴장국면에서 정치적 안정(6자회담 등)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의 과제임
- 역내 에너지, 자연자원의 공동 이용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국가별로 차별

화하여 추진해야 함

-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기간은 33년이고, 몽골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환경에너지 산업과 배수처리시설 등은 국가 간 협력 사업을 통하여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니가타시는 전통산업 -전력 생산, 철강, 조선 등 - 을 중심으로 센다이仙台, 동경권과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지역발전정책의 전개와 대처방안

- 일본 10대 광역지방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접도시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함
 - 호쿠리쿠北陸 지역은 인구 100만 명이며 여기에 토야마富山, 가나자와金澤, 츠루가敦賀 등의 도시가 있는데, 이들 도시 간의 항만별 기능 분담, 해안역 개발 등에서 있어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 등의 연계와 연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지방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재정 건전화(삼위일체 개혁 등) 유지
 - 지역의 재정자립 향상 방안이 계획 실현을 위한 절대적 요소이므로, 보조금·교부금 등을 비롯한 국가 보조금의 정치적 예산배분이 지양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인접도시 간 연계 강화 - 중복예산의 배제 및 각 도시별 최우선 과제를 상호 협의하여 예산 신청 등 -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주니가타 한국총영사 간담회(4월 21일 12:00~13:30)

- 김충경 총영사, 노재용 영사·이지연 부영사
- 러시아를 비롯한 환동해권 지역경제 블록 활성화는 가능하고 필수적임. 니가타는 환동해권에서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하므로 북한을 포용하는 거점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북한의 정세를 극복하는 관건이 있음
- 큐슈와 부산의 경제, 관광 부문 교류에서처럼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이곳 니가타에서 더욱 필요함. 니가타 현지 여건은 북한이 지리적·정서적으로 더 가까움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지향형 생산 및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 등을 한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초국경적 협력 실천과제

1) 단기기간의 성과가 아닌 중장기 실천전략 수립

- 국가 간 프로젝트 완성은 장기간이 소요
 -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30년 간, 300억 달러)은 1992년에 수립되었지만, 최근까지 관련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와 동북아 정세 악화 등 국가마다 발전 속도가 상이하어 공동 추진에 제약이 발생
 - 중국의 경우 최근의 내수경기 부양과 동북지역에서 두만강을 거쳐 동해로 연결되는 물류 통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앞두고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배후시장 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단기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세부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 필요
-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 교류 추진
 - 국가 간 협력사업보다는 민간 대기업, 관광 및 문화교류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초국경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의 역할이 소홀 했다기보다는 협력 주체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 교류가 기반이 되었으며 그 기간도 최소 10년에서 20년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남. 예를 들면,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권 협력 등
 - 국가별 정세의 불안정성, 동북아시아의 긴장 국면 등을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초국경적 협력을 위한 기반연구, 단계별 추진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학술단체와 연구기관 등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국가별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이고 순환 개최 등 상시 교류기반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임

2)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 활성화

- 동북아시아 역내 자원 활용과 산업활동의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
 -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제11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네트워크형 성장을 통한 지역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에너지 중시로 발전전략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음
 - 산업발전전략은 크게 하이테크 산업, 대형장비제조 산업, 에너지 공업, 원재료 공업, 방적공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선정
 - 10대 산업진흥계획(2009. 2.)에서 중국 자체의 기술경쟁력 및 수익력 확대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의 전환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10대 산업은 자동차, 철강, 섬유, 전자정보, 경공업, 선박, 설비제조업, 유색금속업, 석유화학업, 물류산업 등임
 - 특히 이러한 산업발전전략과 함께 광역적인 도시 간 팀워크를 통하여 지역 전체의 밸런스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국토형성계획과 산업 전략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간 연휴 및 형성 전략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교류 및 연계를 통한 광역 블록별 특색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 혁신을 핵으로 아시아지역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하여 아시아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하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
 - 일본 국제산업전략의 7대 신사업은 연료전지, 정보 가전, 로봇, 콘텐츠, 건강 복지 기기 서비스, 환경 에너지 기기 서비스, 사업비원 서비스 등임
 - 동아시아와 교류 및 연계전략은 태평양과 동해를 활용하고, 성장엔진이 되는 도시와 산업을 강화하며, 각 지역이 상호 연계 보완하며, 지역의 종합력을 결집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권을 형성토록 하고 있음
- 일본과 중국의 각 지역과 환경자원의 리사이클 산업 협력관계 구축 사례
 - 일본 기타규슈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스크랩 및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산업을 중국 동부 연안 텐진, 칭다오, 상하이 도시들과 연계하여 환경, 에너지 사업의 개별 장치의 개발에서 판매, 지역 소비(area solution)까지 새로운 리사이클 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을 도모

- 한중일 3국간 교역, 투자, 인적교류는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
 - 한중일 3국간 교역은 1998~2008년 기간 3.8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1999년~2005년 기간 2.8배, 관광객수는 2001~2007년 기간 1.8배 증가함
 - 환황해경제권내 국가 간 교류와 연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표> 동북아경제권에서 한중일 3국간 교류 및 연계 강화

구 분	1999년	2008	증가 배수
교역량(조 엔)	14.2	53.8	3.8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투자액(억 달러)	42.4	117('05)	2.8
인적교류(만 명)	840('01)	1,560('07)	1.8

- 국가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강화
 - 동북아시아 경제권 가운데에서 각 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R&D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러시아, 북한을 포함하는 환동해권에는 국가 주도의 기반시설 확충과 교류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환황해권은 자유로운 기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투자체계를 지원하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러시아, 중국 등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가운데 유의할 사항은 먼저 국가 간/민간기업 간 지속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당사 국가들이 자원만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 관계와 자원개발에 따른 대응전략 - 예를 들어 기반시설 확충에 공동 참여,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공동 사업 참여 등 -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와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 계획 추진주체인 국가의 확고한 시나리오를 제공
 - 동북아경제권,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 등 초광역개발계획 수립주체인 국가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 비전을 시나리오별로 확고하게 제공하여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 및 교류 사업에서 일정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행정절차에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거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진입을 활성화하여야 함
 - 기술 인력과 자원의 공동 개발 등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므로 동아시아 역내 관점에서 공동 활용방안을 국가가 주도적 마련

-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초국적기업 활동 강화
 - 중국,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를 심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 근접성, 동질성, 경제위기 등에서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공동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시장에서 동북아경제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공동 대처가 필요함

- ☞ 동북아시아의 환황해권, 환태평양권, 환동해권 등 지역경제권에서 금융, 무역 관련 제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수시로 각 국가별 동향을 파악하는 등 공동 대처방안을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마련하여 동북경제권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역할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 특히, 중국 동북 3성이 물류기반을 과거 환황해권 항만을 이용하는 체계에서 부산항과 나진항을 이용하는 물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사례에서처럼 동북아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서울~속초~니가타~동경 루트는 기존 부산 중심의 단일 물류체계를 다변화하고, 러시아를 감안한 새로운 물류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문임

4) 인프라, 고급 인력의 공동 활용

- 역내 인프라 시설의 공동 활용: 부산신항의 역할 증대
 - 일본 규슈지역~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환동해안권 도시들은 동경항만 중심의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신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부산신항을 일본,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에 이르기까지 배후권역으로 육성하는 항만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경제권의 인재 육성 및 교류 활성화
 - 산업과 기업들의 수평적 협력 관계 형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각 나라마다 유연한 노동시장의 개방을 들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고급 기술인력은 러시아 연해주 자원개발 및 환경 에너지산업, 일본 자동차 산업·디지털·IT, 중국의 반도체·석유화학·정밀기계 분야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평판이 높음
 - 국내 인력수급 만이 아닌 동북아경제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기술 인력을 역내에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육성체계와 교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접 도시와 연계 발전을 도모
 - 과거 도시 발전과정에서 상호 대립적이며 경쟁적인 도시 성장은 한계가 따르므로 인접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동서남해안권에 입지한 도시들은 과거의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통합한 지역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연계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일본의 10대 광역지방계획, 중국의 도시권 클러스터 형성은 단일 도시보다는 도시권 차원에서 경제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접 도시와 시·도 간 협력은 불가피함
 - 후쿠오카와 기타규슈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존재 - 과거 기타규슈지역의 철강, 전자 산업은 후쿠오카의 신산업(반도체 중심)에 다소 뒤지는 상황이 발

생 -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기타규슈는 산업단지 재정비 등 도시기반을 강화하고 창조도시로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신경제자유주의, 세계화, 자본 예측화 등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동북아역내 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

5) 기타 사항

○ 러시아 도시개발사업, 첨단교통기술 등에 한국기업의 적극 참여 필요

- 연해주정부는 인구 100만 명 신도시개발, 기존 도시 재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공동주택 위주의 기존 시가지와 별도로 친환경적인 도시정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테일 요소를 장점으로 살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시 내 간선도로의 혼잡, 도로 포장 상태 등, 노면전차와 혼재된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 첨단교통기술을 접목한 교통시설 정비사업 참여는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주요 교차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 혼잡 구간에서 차량 경적소리가 울리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도시 내 트램은 저속 운행과 고장이 자주 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철거를 계획하고 있음
-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신교통수단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는 TSR의 출발지로(모스크바까지 9,228km) 철도역, 항만 터미널, 항만 등과 일체형으로 배치되어 항만, 철도의 연계수송과 환승이 용이함
- 반면 국제공항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입국자들 건물 밖으로까지 줄을 서서 1시간 가량을 기다려 입국심사를 받는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인내로 다가가야 함)

○ 후쿠오카 교통센터의 환승 편리성 강화

- 후쿠오카 신간선, 전철역, 고속·시내외 버스 터미널의 연계 수송과 환승센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마치즈쿠리 사업으로 재정비

- 후쿠오카 교통센터는 1층 시내버스, 2~3층 고속버스 승강장과 은행, 병원, 교통방송국(TBC), 4~5층 대형 할인점, 6층 서점, 7층 영화관, 8층 식당가와 임대홀 및 회의실, 9층 학원 및 교통센터 사무실로 활용
- 방문일(4.18.)의 8층 회의실은 지역 회사 설명회, 세미나, 공업회 총회, 세미나, 인재육성 코스 등으로 대부분 사용 중이었음

○ 후쿠오카 오토리大濠 공원 : 水와 綠의 도시 녹화공간

- 후쿠오카 미술관, 舞鶴공원 등과 함께 조성된 호수와 녹지대는 192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함
- 시민들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서 도시 녹화의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

○ 구마모토熊本 Foodpal: 지역 현지 산업의 소개와 휴식 공간

- 지역 현지산업 -와인 공장- 과 공원, 휴식공간을 일체화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구마모토현의 특색을 제공
- 벼룩시장, 공원, 현지에서 구입 가능한 농산물 등을 직거래하여 지역의 독특한 상품과 전통을 소개

○ 아소阿蘇 국립공원 대자연 건강의 삼림 Farmland : 자연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 일본 제일의 소 생산지역으로 유제품, 소고기 가공식품 그리고 유리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판매시설을 설치
- 자연화산인 아소화산을 배경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숙박단지(방갈로)를 조성하여 조용히 자연과 함께 머무르는 공간을 제공

○ 일반국도 212호 수변의 고향 오오야마大山 道の驛(미치노에키): 지역소개의 장

- 일반국도의 휴게소, 주차장, 레스토랑, 화장실, 현지상품 판매장소인 미치노에키는 지역을 외부공간에 알리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2007년 말 일본 전역에 870개소)
- 일반국도변에 위치하며, 주변 하천과 연계하여 여행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과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터미널과 철도역>



<TSR 시점 이정표 9228>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간선도로>



<연해주 간선도로와 표지판>



<연해주 지방도와 표지판>



<트램 전력선과 교차로의 혼잡>



<가로변의 광고물>



<베이징 텐안문 광로>



<칭다오시 버스 정류장>



<일본 후쿠오카 오호리大豪 공원>



가로 구성: 자전거, 조경, 화단, 보도, 호수



<보도와 화단사이 개울>



<후쿠오카 교통센터 안내판>



<구마모토熊本 Foodpal>



<구마모토시 신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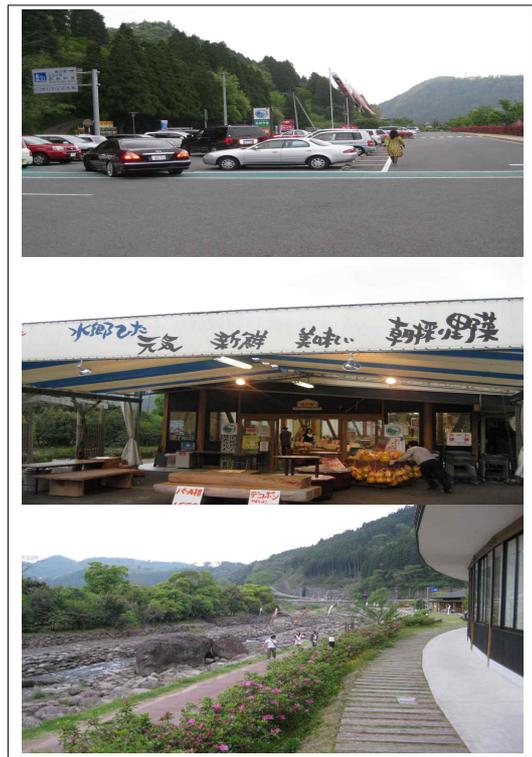
<아소阿蘇 국립공원 Farmland>



<아소화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일반국도 212호 오오야마大山 道の驛> : 주차장, 지역특산물 판매, 휴게소 옆 하천



<니가타항 전경>



<니가타 시내 수로>



<시내 간선도로>



<도심 쇼핑 몰 아케이드(전면과 후면)>



<부록 1> 방문기관별 사전 질의요지(송부용)

1. 러시아

□ 방문기관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 지리연구소,
- 연해주정부 경제개발국/주정부 투자위원회

□ 사전 질의요지

- 극동러시아의 동북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역할 및 위상
 - 장래 발전전략
 - 주요 개발사업 및 국제 협력 분야
- 극동 및 연해주 개발 관련 자료(출판물, 영문)

- ① Roles and status of the Far East Russia i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Block
 - especially on the strategies of Russian development programs, major project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Block
- ② Publications or materials of the Far East Russian Development(in English)

2. 중국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 중국의 지역개발 전략
- 동북아 및 환보하이/동북 3성과 환황해경제권의 경제권 간의 지역분업에 대비한 적정 역할 분담 방안 등
- 주요 기반시설 개발사업
- 지역별 산업고도화 전략
-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 보고서(출판물)

< 영어 >

- ① Strategies of China Regional Development
- ② Adequate roles and partnership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Block, and the region of Huan Bo Hai Wan, Dong Bei San Sheng, Huan Huang Hai Wan
- ③ Major Development Projects of Infrastructures
- ④ Schemes of level-upping to industrial sectors
- ⑤ Publications about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 중국어 >

- ① 中国地域性开发战略
- ② 东北亚及环渤海/东北三省与环渤海经济圈的经济圈地域分工的分配方案
- ③ 主要基础设施的开发项目
- ④ 各地区的高产业化战略
- ⑤ 有关加强国家间合作的报告（出版物）

□ 산동성 칭다오시 외사관공실, 무역부, 산업개발팀, 사회과학원

- 한국(수도권)과의 분업 구조
- 칭도시/산동성 산업발전 전략
- 주요 기반시설 개발 사업
-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 보고서(출판물)

< 영어 >

- ① Status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between China and Korea(Seoul Metropolitan Area)
- ② Strategies of Qingdao Shi/Shandong Sheng's Industrial evolutions
- ③ Major Development Projects of Infrastructures
- ④ Publications about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 중국어 >

- ① 与韩国（首都圈）的分工结构
- ② 青岛市/山东省产业发展战略
- ③ 主要基础设施的开发项目
- ④ 有关加强国家间合作的报告（出版物）

3. 일본

□ 큐슈경제조사협회

- 극동아시아·동북아시아, 특히 환동해·환남해 경제권의 초광역개발전략에 대한 큐슈 경제권의 기본원칙 및 전략
- 부산광역시와 경제협력에서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큐슈지역의 시나리오
 - 협력대상 사업 혹은 협력부문의 단기,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순위
 - 추진주체(국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별 역할 분담 및 민간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 각 국의 행재정 제도개선 사항
-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 보고서(출판물)

九州經濟調査協會

- 東アジア、特に韓国の南部と東部の沿岸地域との經濟交流に関する九州地域の原則と戰略は？
- 부산시와의經濟交流事業から得た成果と課題及びこれからの施策
 - 協力事業などの短期・中長期計画と優先順位
 - 主体(国、地方政府、民間など)別の役割分担および民間企業の政府に対する要望事項
- その他、國際協力強化のための研究資料

□ 국제동아시아 연구센터

- 극동아시아·동북아시아, 특히 환동해·환남해 경제권의 초광역개발전략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해 연안 광역개발권의 기본원칙 및 전략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일본정부(지방정부)의 시나리오
 - 협력대상 사업 혹은 협력부문의 단기,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순위
 - 부산항을 이용한 일본 태평양권과의 차별화 방안
 - 추진주체(국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별 역할 분담
 - 각 국의 행재정 제도개선 사항
-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 보고서(출판물)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南部와 東部の 沿岸地域 와의 經濟交流 に関する 日本政府의 原則와 戰略は (예를 ば, 日本海側에 面して 있는 地域의 広域地方計劃 での 位置づけ) ?
- 國際協力体制을 構築する ための 国と 地方政府의 政策は
 - 具體的인 事業 あるいは 政策의 短期、中長期의 計劃と 優先順位
 - 日本의 太平洋側 との 競争する ための 부산市을 活用 あるいは 協力する 計劃
 - 主体(国、地方政府、民間など) 別의 役割分担 および 民間企業의 政府 に対する 要望事項
- 其他、國際協力強化 ための 研究資料

□ 환일본해경제연구소

- 극동아시아·동북아시아 經濟권의 초광역개발전략에 대한 일본 정부(혹은 광역개발권)의 기본원칙 및 전략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일본정부(혹은 지방정부)의 시나리오
 - 협력대상 사업 혹은 협력부문의 단기,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순위
 - 추진주체(국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별 역할 분담
 - 각 국의 행재정 제도개선 사항
-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 보고서(출판물)

ERINA研究所

-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南部와 東部の 沿岸地域 와의 經濟交流 に関する 日本政府의 原則와 戰略は (예를 ば, 日本海側에 面して 있는 地域의 広域地方計劃 での 位置づけ) ?
- 國際協力体制을 構築する ための 国と 地方政府의 政策は
 - 具體的인 事業 あるいは 政策의 短期、中長期의 計劃と 優先順位
 - 日本의 太平洋側 との 競争する ための 부산市을 活用 あるいは 協力する 計劃
 - 主体(国、地方政府、民間など) 別의 役割分担 および 民間企業의 政府 に対する 要望事項
- 其他、國際協力強化 ための 研究資料

□ 일본 방문기관 개요

1. 큐슈경제조사협회

1) 이사장 인사말

- 우리 협회는 전쟁 직후인 1946년 10월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산학관을 대표하는 분들의 발기로 설립
 - 당시의 설립 취지는 ‘국민생활의 과학적·통계적인 파악’과 ‘큐슈경제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의 집대성'을 통해 민주주의적인 향토를 건설하고 조국을 재건하는데 공헌한다는 것이었음

- 이후, 지방분권의 흐름속에서 지역의 주체적인 사업과 정책 입안이 요구되고, 생활권·경제권의 광역화에 따른 큐슈·야마구치현 수준에서의 정책제안·실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협회의 사업활동이 확대됨
- 아울러,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시대의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야를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면서 지역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싱크탱크로서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

2) 조직 개요

- 설립일: 1946년 10월 25일
- 기본재산: 7억 5천만엔
- 설립목적
 - 큐슈지방의 사회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 지방경제에 관한 조사에 대한 조성·촉진
 - 통계·연구·조사보고, 기관지 발행
 - 연구회·강연회·강습회 등의 개최
 - 자료의 수집·정리·교환 및 이용의 촉진

2.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ICSEAD)

1) 이사장 인사말

- 우리 센터는 동아시아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임
 - 우리 센터가 제안한 '환황해경제권구상'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함
- 우리 센터의 연구체계는 발전전략·도시경영·신규 비즈니스 등을 주제로 중심으로 산업과 물류에 관한 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 작년에는 중국의 복단대학(復旦大學)에 '복단대학 ICSEAD 발전연구센터'(중국어로는 '九州-上海發展研究中心')를 설치
 - 동아시아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정보의 수립·제공 등을 통해 지경제계에 기여
- ※ 센터에는 평의원으로 한국인 유장희(柳莊熙)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이 재직 중

2) 조직 개요

- 설립일: 1989년 9월 1일
- 조직형태: 재단법인
- 소관부처: 문부과학성
- 기본재산: 937,352천엔
- 설립목적
 - 동아시아의 발전 관련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국제협력 촉진
 -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학술교류를 촉진
- 연구 테마
 - 동아시아경제의 성장 분석
 -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서의 다국적기업
 -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 중국의 지역격차문제
 - 인도네시아의 다국적기업 활동
 - 지역경제통합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활동
 - 대만의 IT산업
 - 경제발전과 소득격차, 기업과 기술개발
 - 국제무역, 다국적기업의 이론·실증연구
 - 집적의 형성요인과 사회자본의 영향

3.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개요

1) 이사장 인사말

- 1993년 10월 니이가타시(新潟市)에 ERINA 설치
- ERINA는 북동아시아 경제정보를 수집하여 조사·연구하고 지방도시가 협력하여 경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이를 통해 북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공헌
- 이후 지방 민간기업의 경제교류 지원사업과 관련 국가·지역이 참가하는 ‘북동아시아발전국제경제회의’를 개최
 - 북동아시아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 국제기관 등으로 구성

※ 북동아시아란 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 등 6개 국가를 뜻하며, ERINA는 주로 중국에서는 동북지방, 러시아에서는 극동·동시베리아를 대상 범위로 활동

2) 조직 개요

- 조직형태: 재단법인
- 소재지: 新潟市中央区万代島5番1号万代島ビル13階
- 연락처:
 - TEL [REDACTED]
 - FAX [REDACTED]
 - URL [REDACTED]
- 소관부처: 경제산업성
- 설립일: 1993년 10월 1일
- 설립목적
 - 북동아시아지역의 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조사·연구 등을 통해 일본과 북동아시아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여 북동아시아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공헌
- 기본재산: 31억 6천 3백만엔 (2008년 3월 현재)
- 출연기관: 니이가타현, 니이가타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군마현, 나가노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新潟縣、新潟市、青森縣、岩手縣、宮城縣、秋田縣、山形縣、福島縣、群馬縣、長野縣、富山縣、石川縣), 민간기업 8개사
- 사업내용
 1. 북동아시아지역의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3. 북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연구교류
 4. 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5. 연구성과의 출판 및 정보의 수집·제공 등

<부록 2> 출장 수집자료 목록

	제 목	분 류	참 고
1	靑島市地經濟社會發展淸書(Blue Book of Qingdao 2009) 郭守仁 편저	단행본	중국해양대 학술관부
2	靑島市經濟社會發展研究報告 2009 任銀睦 편저	단행본	"
3	九州と韓國南部地域(釜山等)の超廣域經濟連携モデル策 定日韓合同調査 報告書(2009. 3.) 財團法人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財團法人 九州經濟調査 協會	단행본	
4	큐슈와 한국 남부의 초광역경제 제휴모델 책정 일한 합 동조사-한글 요약	회의자료	
5	圖說 九州經濟 2009. 財團法人 九州經濟調査協會(KERC)	단행본	
6	후쿠오카시 기업입지 안내	팸플렛	福岡市
7	후쿠오카시-부산광역시 간의 경제협력-경제교류에 관하여	회의자료	"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후쿠오카시-큐슈경제조사협회 의 견교환회(2009. 4. 17)	회의자료	KERC
9	韓國東南部と九州地域の概況について	회의자료	KERC
10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	회의자료	부산광역시
11	環黃海地域における國土政策分析調査. 2009. 2. 財團法人 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단행본	
12	九州圏廣域地方計劃 中間整理 ~東アジアとともに發展 し、活力と魅力あふれる國際フロンティア九州~ 2009. 10. 九州圏廣域地方計劃協議會	단행본	
13	環黃海地域における都市間連携	회의자료	
14	日本 北部九州 무역과 투자동향	회의자료	
15	Pan Yellow Sea. 2009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뉴 스 No.13(http://www.pysih.net/)	팸플렛	
16	(재)국제 동아시아연구센터 요람 2008/2009	팸플렛	
17	ERINA 소개	팸플렛	
18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회의자료	